

자기소개서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존재의 몫을 실천하다.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갈 것인가?’

저 자신에게 던지는 수많은 질문은 제 삶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습니다. 새롭고 낯선 것을 마주하거나 예상치도 못한 변수로 한 치 앞이 아득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물러서기 보다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더 큰 가능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교직에 첫발을 내딛은 이듬해 학교 교직원 환영회 자리에서 교감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홍선생! 앞으로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행정가가 되고 싶어? 아니면 정치가가 되고 싶어?”

당시 이제 막 교사가 된 저에게는 매우 생소한 질문이었지만, 교감 선생님의 이 한마디는 지금껏 제 삶의 기로에서 나침반 역할을 해왔으며, 저는 ‘선생님’이 되기를 선택해왔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고향이 어촌 마을인 저는 어린 시절 바닷가에 누워 구름을 바라보며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세상은 상상과 희망, 꿈을 향한 도전과 용기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2007년 ‘홍샘의 철학교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해석·판단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철학적 텍스트를 해석하며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한 학생들이 한국철학올림피아드 전국 1등 성적 외에도 각종 독서논술 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저의 첫 번째 상상은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2020년 학교는 구성원 모두가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교무기획부장을 맡은 저는 온라인 개학 준비, 등교 수업 학생 안전 관리, 학교 방역 관리 등 수많은 난제와 위기 속에서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멈출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설득하며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학교와 교육’을 함께 지켜내었습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2월, 저는 올해 3월에는 학생들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감지하였고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학교와 교육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에게 그리고 함께 헤쳐가고 있는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지며 혼란한 상황을 차분하게 풀어가고자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오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휴업일이 연장됨에 따라 불안해하고 있는 학부모에게 학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고래, 하늘을 날다!

“변명의 카르텔을 거부하였습니다.”

지금껏 학교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생각보다 많은 교사들이 스스로를 변명의 카르텔 속에 가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열 중심의 입시제도 하에서 교실혁명은 불가능해.’, ‘학교 업무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언제 수업까지 변화시킬 수 있겠어.’ 물론 현실의 벽과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교사들이 이렇게 변명과 푸념을 늘어놓는 순간에도 학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함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다행히 많은 선생님들이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노력한 흔적들이 2012년 율하중학교 스마트모델 연구학교 운영에서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 가장 가까이에서 기꺼이 그 곁을 내어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선생님입니다. 한 선생님의 변화와 성장은 곁에 있는 아이들의 삶에 크고 작은 진동을 일으키게 되며, 이는 교사의 삶에서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일 것입니다. 2007년 ‘홍샘의 철학교실’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철학과 논술을 통해 자기 삶의 주체로 성장해가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조금 더 많은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전을 망설이지 않았습다. 그중에서도 2014년과 2015년 ‘KBS 거꾸로 교실의 마법-천 개의 교실’ 프로젝트는 저에게 공교육 혁신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잠자던 아이들이 깨어나고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은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에게 배움의 불씨를 다시금 살려내었고, 이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교실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삶을 돕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사로서의 자기 삶을 사랑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 상상하고 힘차게 발을 구르며 자신의 꿈을 펼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 곁에서 늘 함께하며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교사성장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성장을 돕는 교사성장학교를 중심으로, PBL(프로젝트 기반 학습) 지원센터, 미래교실 연구소, 슬로리딩 연구소, 교실 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도 전국 1,000여명의 선생님이 함께 모여 공부하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협업과 연대가 주는 진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성장학교는 일 년 동안 선생님이 다시 학생이 되어 학교를 다니며 교사로서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2월 PBL(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본 고장에서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12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던 기억은 제 인생에서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미국 현지 교사들과 함께 PBL을 공부하고 돌아와 지금까지 4번의 PBL101(기본) 연수, 3번의 PBL201(심화) 연수 그리고 2번의 PBL컨퍼런스를 통해 선생님들에게 그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시작된 PBL지원센터는 PBL이 교실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의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기 시작한 것은 2014년 경남교육청 정책과제 ‘배움중심수업’의 실현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배움중심수업은 공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였기에 저의 활동이 경남교육의 배움중심수업 저변 확대와 선생님들의 동기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특히 ‘경남 배움이 즐거운 수업나눔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6년부터 3년간 TF팀에서 활동하며 수업나눔축제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시하는 등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진심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3년간 발령 만 5년 미만의 신규교사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고 선배 교사들의 지혜와 지지를 나누는 자리인 ‘신규교사 도움달기 캠프’를 기획·운영하여 상당수의 신규교사에게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교사의 삶을 이야기하는 ‘찾아가는 수업 카페’, 교실 변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선생님을 응원하기 위한 ‘오늘수업망해+수다’, 청소년들의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청세미(청소년, 세상과 미래교실을 만나다) 캠프’ 등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직·간접적인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꿈을 꾀다.



“모두가 손잡고 걸어가며 새로운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비록 제가 가는 길이 울퉁불퉁한 산길처럼 험하더라도 누군가가 닦아 둔 길을 가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현실에 대한 통찰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뛰어난 편이라 문제의 본질을 읽어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 장기적인 시각에서 단계적으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획력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폭넓게 수용하며 여러 주체들과 협업할 수 있는 유연함이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김해금곡고등학교에서도 역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저의 경험과 장점이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직, 지역사회 주민 등이 민주적으로 협업하고 연대할 때 모두가 동등한 주체로서 성장하는 삶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멀리 갈 수도 오래갈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주는 진동으로 김해금곡고등학교의 새길을 열어가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꿈꾸는 교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사연과 아픔을 가진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말은, “~하지만, 학교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그냥 이물질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주변 선생님들은 저의 노력을 유별나다고 보시거나 오히려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함께 이야기 나눌 동료가 필요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목에 가시가 걸린 듯 답답함을 느꼈고, 과연 공교육 안에서 서로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동료 문화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했습니다.

꿈을 가진 교사 곁에는 꿈을 가진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돕는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선생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리는 공간이 되고 학교 곳곳에 그 흔적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돕는 교장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김해금곡고등학교 교장으로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다시 꿈꿀 수 있도록 도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곁에서 저도 함께 다시 꿈꾸며 구성원 모두가 ‘자율과 연대로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